

200자 안내

이 황량한驛에서

李文烈 外 지음

7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작가의 명성을 얻은 작가 10명이 스스로 선정한 단편들을 모은 책. 격변의 시대 속에서 정당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작품에 흡수하여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문열, 김성동, 김홍신, 박범신, 송기원, 이균영, 이청준, 최수철, 현길언, 김상열 등의 작품 열편이 실렸다.

오상출판사/A5/362면/3500원

하늘의 발자국

馬鍾河 지음

시인인 저자 자신의 짧은 날을 정관적으로 바라본 수기적 장편소설. 60년대에 두 일간지 신춘문에 공모에서 동시에 당선되는 등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저자의 지난날이 꾸밈없이 기록되고 있다. I부 꿈과 자유를 찾아서, II부 마른 빵을 씹으며, III부 피의 모자이크 등으로 이루어진 글 속에 시인의 진솔한 검허가 배어난다.

창우사/A5신/282면/3200원

바람의 아이

김민숙 지음

「시간을 위한 진혼곡」으로 녹원문학상을 수상했던 저자의 다섯번째 청소년을 위한 소설. 청소년기에 다가오는 부모와의 갈등, 어른들의 비밀, 미숙한 사랑의 모습들이 예술가를 꿈꾸는 주인공의 성장과정과 함께 그려진다. 예민한 감성을 지닌 청소년기의 갈등을 섬세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햇빛출판사/A5신/262면/2900원

來日 울리는 징소리

韓國戲曲作家協會 역음

10년 동안 꾸준히 작품집을 펴고 있는 한국 희곡작가협회의 열번째 年刊희곡집. 한국희곡문학상을 수상한 오태영의 「트로이안 테바이」, 김숙현의 「캡슐을 위한 변주」를 비롯하여 17명의 작품이 실렸다. 이 시대를 소리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진실된 삶을 형상화시켜 공명을 준다.

목우/A5/418면/4500원

엘리어트의 「네개의 四重奏」 그 理解와 鑑賞

崔昌鎬 지음

T.S. 엘리어트의 시 「네개의 사중주」를 보다 바르게 이해, 감상하기 위한 책.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집약시키고, 음악적인 수법을 응용한 이 시의 의미구조와 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음악적 구조에 따른 엘리어트의 「네개의 사중주」를 이해하는 또다른 관점이 제시된다.

삼지사/A5신/172면/3000원

나의 빨간 수첩에서

三浦綾子 지음 / 박영 옮김

「빙점」으로 한국 독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자의 최신 에세이집. 인간은 태어나서 땅에 묻힐 때까지 말에 둘러싸여 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평범한 일과 속에서 저자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었던 말들을 떠올려 그때의 상황과 심정을 진솔하게 담았다.

自由文學社/A5/320면/3300원

돌아오는 길

徐淑 지음

이화여대 영문과에 재직중인 저자가 지난 2년 동안 쓴 글을 모은 첫 에세이집. 삶에 녹아든 이별, 상실, 희망에 대한 담담한 응시의 글 52편이 5장으로 나뉘어 담겨 있다. 일상의 흔적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소망과, 개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참된 소리를 듣고자 하는 저자의 기원이 펼쳐진다.

自由文學社/A5신/222면/3000원

세계민속춤

홍기삼 편저

민속무용의 원형보급에 힘쓴 저자(YMCA 민속무용연구회 회장)가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 민속무용의 다양한 종류와 동작들을 총정리하여 책으로 펴냈다. 1장에서는 민속춤의 발달과정을 살폈으며, 2장에서는 기본용어들을 해설했고, 제3장에서는 미국·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스웨덴 등 세계 각지의 민속무용의 기본 스텝을 악보와 함께 소개했다.

금광/A5/208면/4000원

서양조리기술론

정청송 편저

조리기술의 이론과 실제. 기초적인 서양요리에서부터 고급요리까지 조리론에 관한 것

을 총망라했다. 조리기술이론과 조리기술, 88 서울올림픽 메뉴 등 3부로 나누어 조리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식품·영양·메뉴작성법, 조리 원가관리, 각종 서양요리 조리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전연구소/A4변형/606면/11000원

Coleridge 詩에서의 存在의 意味

宋在參 지음

근대 비평문학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Coleridge의 시와 철학사상을 해명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Coleridge가 남긴 비평이론이 그의 시에서 어떻게 조명되었는가를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翰信文化社/A5변형/168면/4000원

명상록 · 행복론

아우렐리우스 · 세네카 지음 / 황문수 · 최현 옮김

스토아철학의 삶에 대한 통찰이 나타난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세네카의 「행복론」을 묶은 책. 자연에 따름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인생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 스토아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고전이다.

汎友社/B6변형/334면/3500원

코리아게이트

李敬在 지음

한·미간의 갈등이 깊었던 70년대, 유신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대미 로비공작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코리아게이트의 실상을 재조명한 책. 월간 「신동아」에 연재되기도 한 내용으로 사건관련자 김한조의 증언, 충실한 자료수집과 함께 그 실상이 밝혀진다.

東亞日報社/A5/384면/3900원

미국, 미국인

全奎泰 지음

저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느낀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글을 엮은 책. 각종 범죄와 마약, 문맹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의 사회현실과 미국인의 의식구조를 외국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白文社/A5신/308면/3000원

불의 터널

윤명혜 외 9인 지음

「여성동아」 장편소설 당선작가들의 모임 「여성동아 모우회」에서 엮은 신작집. 10인의 여성들이 문학에 대한 집념을 모아 만든 공동창작집 「분노의 메아리」 이후 세번째 작품집으로, 8편의 단편과 2편의 중편을 실었다.

전예원/A5/368면/4000원

여성과 한방

유승원 지음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건강관리법의 내용을 담은 건강생활 안내서. 특히 여성 건강과 밀접한 피부미용, 빈혈, 여성질환, 신경통 등에 대한 한방요법과 식이요법을 소개하고 있다. 인공적인 것에 몸과 마음이 병든 현대인들에게 자연스런 치유법을 가르쳐 준다.

語文閣/A5변형/272면/3000원

薄命

韓龍雲 지음

1983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한용운의 장편소설을 단행본으로 펴냈다.

한 인간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통해 沒我的 현신에 의한 自我구제의 불교적 철학을 표출하고 있다. 역사와 사회현실의 사실적 묘사와 의식 흐름에 따른 갈등 분석 등 현대 사실주의 형태가 돋보인다.

壯韓/A5/400면/3800원

나무百科(3)

任慶彬 지음

대한산림조합중앙회에서 간행하는 월간 「산림」에 연재되었던 「나무이야기」의 내용을 다듬어 책으로 묶었다. 가시나무, 거제수나무, 동백나무, 벽오동나무 등 우리의 산과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34종류의 나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수필체로 소개하고 있다. 나무에 관심 있는 일반독자들에게 알맞은 책이다.

一志社/A5변형/446면/4000원

경영과 컴퓨터

Henry C. Lucas 저 / 방성찬 역

기업경영에 있어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짜임새있게 설명한 입문서. 컴퓨터의 발전사, 영향, 새로운 전개방향 그리고 실제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한편 컴퓨터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희성출판사/B5/480면/8000원

하이테크 세일즈 전략

김영한 지음

하이테크시대에 알맞은 한국형 세일즈의 새로운 기법을 정리한 지침서. 새로운 세일즈의 개념 정리와 세일즈 심리, 인간행위 등을 분석하고 세일즈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전략과 전술을 소개하였다. 지식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하이테크 제품의 판매방식을 안내하고, 상품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세일즈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컴퓨터정보사/A5신/356면/5000원

食品貯藏 및 加工

南富錫의 공저

식생활의 과학화를 위해 식품가공저장의 이론적 배경, 식품변질요인과 억제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핀 연구서. 1,2장에서는 기본적인 식품의 저장과 가공, 품질의 열화를 다뤘고, 3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건조·저온저장·가열·염장·훈연저장 등을, 11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곡류·과일·축산식품·발효식품 별로 저장 및 가공방법을 자세히 다뤘다.

先進文化社/B5/286면/6500원

자녀교육 기초부터 완성까지

지그지글러 지음 / 이한주 옮김

부제는 '부모가 스스로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육지침서'.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갖가지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화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 유형들이 단계별·방법론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저자 자신의 실생활의 에피소드와 실례로 엮어졌다. 선명 교육선서 1.

선영사/A5신/320면/3500원

문학의 모방과 모반

유한근 지음

문인협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평론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의 첫평론집. 1부 문학일반론, 2부 작가론, 3부 시인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학을 '창조를 위한 모방'으로 보는 저자의 관점이 책 제목에 나타나 있다. 「역사 변동과 첨예한 비평대응」 「민중문학의 의아한 국면들」 「알레고리와 표상의 미학」 등 현상감 있는 실제비평이 실려 있다.

한강문화사/A5신/308면/4800원

망각의 문턱에서

김 마리아 지음

한 집안의 4대에 걸친 수난의 대서사시를 통해 우리 민족의 뼈아픈 근세사를 증언하고 있는 책. 저자인 김마리아여사는 탤런트 김혜자씨의 친언니로서, 일제의 압박과 6·25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한 이 책이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원사/A5신/366면/3500원

천재들의 학창시절

프라우제 지음 / 이인식 옮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68인의 청소년시절 이야기. 아인슈타인, 처어칠, 바그너, 채플린 등 독창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

들의 청소년시절의 성장과 남다른 노력의 모습이 당시의 사회상황 설명을 곁들여 감동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학교 성적은 뒤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훗날 훌륭한 인물이 된 이들의 면모가 흥미롭다.

진선/A5/224면/2700원

계간지

창작과 비평 (88년 가을)

[좌담] 민족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박현채, 백낙청, 양건, 박형준)

[논문]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이영희) ▲역사법칙 재론(유재건) ▲'더 많은 사회주의'로서의 소련 페레스트로이카(황태연) ▲고조선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금후의 과제(김상호) ▲일·한 연대운동의 사상과 궤적(和田春樹)

[문학평론] ▲고은과 신경림(이시영) ▲용악-민중시의 내면적 진실(김종철) ▲민주주의 민족문학의 현단계와 문학적 현실주의의 전망(조정환) ▲여성문학론의 비판적 검토(김영희)

[시] 고은/조태일/박철

[소설] 남정현/윤정모/공지영

[서평] 신경림/김홍규/김세균

문학과 사회 (88년 가을)

[기획] ▲민중문학 개념에 대한 역사적 검토(홍정선) ▲해방 직후의 민족문학론(민현기) ▲민중문학론의 계급론적 관점(임우기)

[비평/논문] ▲정치 세계의 존재론(남경희) ▲시 작품과 무대 공연(주인석) ▲유황불의 경험과 리얼리즘의 깊이(류철균)

[오늘의 한국문학] ▲6월 항쟁 소설의 정치학(임현영) ▲글쓰기의 지형학(김인환) ▲죽음을 몰아내는 呪文(김치수)

[소설] 임철우(연재)/김원일/김남일

[시] 정현종/김광규/박세현/고재중/고진하/정남식/박인택

[서평] 김종철/박혜경/남진우/李慶洙/李京洙

연감

韓國出版年鑑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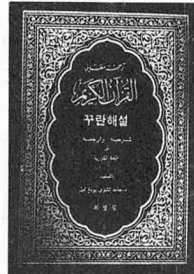
광범위한 자료를 수록, 지난 한해 동안 한국의 출판문화가 성장·발전해온 모습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88년판 「출판연감」이 나왔다.

총7편으로 나누어진 이 책의 제1편 「年間日誌」와 제2편 「概觀」은 '87년의 출판계 동향」을 정리한 年間史로서 출판문화사에 있어서 작년 한해가 의미하는 특징을 이해하는

이색출판

꾸란해설

최영길 옮김



회교도의 최고 경전인 「꾸란」이 우리말로 완역되었다. 역자는 명지대 아랍어과 최영길교수. 최교수는 76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소재 이슬람대학교에 유학하던 때부터 「꾸란」을 한 절씩 번역하여 그후 10년간에 걸쳐 총 114장에 달하는 「꾸란」을 완

화제의 책

한국의 탈 한국의 탈춤

김수남 사진



민중의 사회의식과 전통적 미의식이 드러나 있는 귀중한 유산인 탈과 탈춤이 한 사진작가의 오랜 집념과 노고 끝에 두권의 책으로 엮여져 나왔다.

작가 김수남씨는 60년대 후반 대학시절부터 굿, 농악, 탈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3편 「目錄」은 도서·잡지·교과서로 나누어 수록되었는데, 도서는 문공부에 납본한 초판을, 잡지는 서점에서 판매되는 有價誌를, 교과서는 중·고교용 1·2종 교과서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4편의 「통계」와 제6편의 「법규」는 한국 출판계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당해 연도의 통계 외에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정리했다.

제5편 「名簿」는 출판사, 잡지사, 서점, 인쇄사, 도서관, 저작권 대행사 등 관련 업체·기관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록하였고, 제7편 「參考」에서는 출판과 관련된 「상·표장」 및 현안 과제가 되고 있는 국내의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자료, 해금도서·미해금도서·유보도서 등의 목록을 실어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A5신/1419면/비매품

역했다.

이슬람교도의 신념에 따르면 알라神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언자 마호메트에게 「꾸란」을 전하고 그는 또 이것을 아라비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고 한다. 한때는 많은 유사본이 있었으나 마호메트 사후 제3대 칼리프 오스만(644~656)때에 표준본이 정해져서 현대에 이르고 있다. 내용은 세계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격렬한 어조로 말한 부분과, 고대 여러 민족(특히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행적을 평탄한 어조로 말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지면 배열은 상단 가운데에 아랍어 원문이, 좌측에 漢譯이, 우측에 우리말 번역이 실렸고, 하단에 본문에 대한 주해를 실고 있다. 松山/B5/1346면/20,000원

굿판이나 탈춤이 벌어지는 곳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당시엔 주로 흑백사진이었는데, 막상 출판문제가 거론되자 컬러사진이 더욱 효과적이고 감동적일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84년부터 87년까지 컬러 위주로 보충했다.

「탈춤」은 봉산탈춤, 강령탈춤, 송파산대놀이, 통영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전국적으로 공연되는 14종류의 탈춤모습을 담았고, 「탈」은 거기 등장하는 2백수십개에 달하는 탈을 담았다.

작업 기간 3년, 편집만 10개월이 걸렸으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여 만든 이 책의 출간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선명한 사진영상으로 보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平凡社와도 계약을 체결, 연말쯤 한글권으로 재편집한 일어판 「탈」 「탈춤」이 일본서점에 선을 보일 예정이다.

행림출판/A4/250면 내외/각권 60,000원

200자 안내